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세진플러스 박장배 전무, 박준영 대표이사, 코오롱글로벌 윤창은 대표이사, 코오롱이앤씨 조현철 대표이사, 강창희 상무(왼쪽부터).

폐섬유로 만든 건축자재 개발 시장 개척 나선 코오롱이앤씨

세진플러스와 섬유패널 시장 개척 업무협약 기존 목재보다 강도·내구성·난연성 등 우수

코오롱글로벌의 모듈러 건축 자회사인 코오롱이앤씨가 섬유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건축자재 개발 및 시장 개척에 나섰다.

코오롱이앤씨는 사회적기업인 세진플러스와 함께 폐의류·폐원단 등 섬유폐기물을 가공한 섬유패널을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섬유패널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섬유패널은 섬유 폐기물을 부직포 형태로 가공해 접착제나 화학제품의 첨가 없이 열점착 방식으로 만드는 고밀도 패널이다. 기존의 가공 목재보다 강도와 내구성, 난연성 및 흡음성이 뛰어나 벽이나 바닥, 천장 등의 건축물 내장재를 비롯해 지붕, 외벽 등의 외장재, 불박이 장 가구 등의 용도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재고 의류나 현우의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패널같은 업사이클링 소재의 개발은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코오롱이앤씨와 세진플러스는 양사의 사업역량과 기술을 접목해 섬유패널의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업사이클링 신소재개발과 업사이클링 소재의 용도 확대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코오롱이앤씨 관계자는 18일 "건축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섬유패널 같은 업사이클링 건축자재도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로 개발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오롱글로벌 자회사로 설립된 코오롱이앤씨는 모듈러 건축기술 및 탈탄소화(OSC)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병동을 시공함으로써 특수건축 분야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음압병동뿐 아니라 타운하우스, F&B 빌딩, 상가 등으로 모듈러 건축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GS건설 '대구역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내달 중 분양

대구역·롯데백 코 앞... '입지 짱'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81호실 전 호실 남향... 빌트인 가전 옵션 동성로 상권·이마트 도보권 위치 전매제한 없고 청약도 자유로워

아파트 가격 상승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도권에서 시작된 오피스텔의 인기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역 초역세권에 '자이(XI)' 브랜드를 단 오피스텔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GS건설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500-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역자이 더 스타'의 오피스텔을 9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동으로 아파트 42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 ▲77㎡ 84가구 ▲84A㎡ 84가구, ▲84B㎡ 169가구, ▲84C㎡ 84가구, ▲113㎡ 3가구가 주거형 오피스텔 84㎡ 81호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81호실을 분양한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 예정이다.

대구역 일대는 최근 활발한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주거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하며 지역 내에서 주목도가 높은 곳이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역과 바로 인접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 대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게다가 바로 앞 태평로, 신천대로를 통해 대구 시내 어느 곳이든 접근이 쉽다.

도심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점도 특징이다. 단지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 위치해 있고 동성로 상권, 이마트, 칠성시장 등이 도보권 내에 있다. 교육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이 '대구역자이 더 스타' 오피스텔 81호실을 9월 중 분양한다. 대구역 초역세권에 들어설 대구역자이 더 스타 조감도. 사진제공 | GS건설

환경도 좋다. 옥산조를 비롯해 경명역 중·고, 칠성고 등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있고, 침산동 학원가와 동성로 학원가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최고 47층 주상복합아파트의 도심 전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단지의 배치와 설계에 주의를 기울였다. 동간 조망 간섭을 줄이며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은 자이의 브랜드 가치와 이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호실이 남향으로 배치되며 빌트인 가

전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단지의 오피스텔은 100㎡ 미만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주택청약제도와 관계 없이 청약이 자유롭다. 실거주 수요자와 함께 여윌돈으로 가치있는 투자처를 찾는 이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18일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의 최종심인 대구역에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만큼 지난 2017년 입주한 인근 대구역 센트럴자이를 잇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달서구 두류동 135-4번지에 마련된다. 분양문의 1644-0260.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포스코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광고상현마을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강자 포스코 수지지역 잇달아 수주

광고상현마을현대APT 시공사 선정

포스코건설이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연이은 사업 수주로 '리모델링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광고상현마을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비대면으로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광고상현마을현대아파트는 2001년 준공해 올해 20년이 경과한 단지로 포스코건설은 아파트 7개동 498세대를 수평 및 벌동 증축해 8개동 572세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74세대는 일반분양되며 공사비는 1927억 원이다.

이에 앞서 포스코건설은 7월 수지 동부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자로도 선정됐다. 1995년에 준공해 올해로 26번째 접어들어 단지는 기존 6개동 612세대를 수평 및 벌동 증축 방식으로 6개동 687가구가 탈바꿈한다. 공사비는 1778억 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18일 "리모델링 추진에 적극적인 용인 수지 지역 내 여러 사업에 적극 참여해 대규모 '더샵 브랜드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더샵의 브랜드 가치를 재산적 가치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고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부산 서금시5구역 재개발(5833억 원), 수원 영통 삼성대영 리모델링(2860억 원) 등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분야 총 수주액이 2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한해 역대 최대 수주액은 2019년에 기록한 2조 7452억 원이다.

현대건설,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맡는다

공사비 6200억원·2604가구 조성 르네센트, 서면의 '랜드마크' 기대

현대건설이 최근 부산시 진구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임의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594표 중 573표(득표율 96.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진구 만리산로61번길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36층, 18개동의 공동주택 2604가구(오피스텔 144실 포함) 및 부대보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6200억 원.

현대건설은 범천의 '부흥(RENAISSANCE)'과 서면의 '주거중심(CENTER)'이라는 의미를 담은 '르네센트(RENAICENT)'를 단지명으로 정하고, 범천4구역을 서면의 중심이자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범천4구역 수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한 범천 1-1구역과 함께 범천동에 4000



현대건설이 최근 수주에 성공한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 | 현대건설

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6층, 지상 49층, 8개 동의 공동주택 1323가구와 오피스텔 188실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은 올해 총 1조 912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3년 연속 수주액 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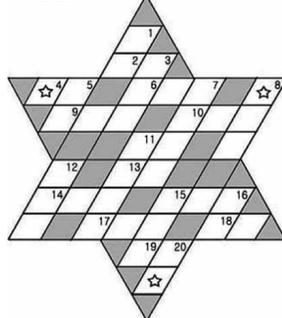
	8	6	9		2			
2		7	5					6
				3	7		9	
		5						2
9	2	6			1	7	4	
4						9		
	7		3	4				
1			7		2		5	
	5			2	6		8	

		1		8		4		
3	7			5		6	8	
	5			7			1	
4		7	5		9	8		6
		1		2			4	
7	3			9			8	4
			8			3		
		9	4	1				

■ 스도쿠정답

2	8	6	9	3	7	5	1	4
6	1	9	5	7	2	8	3	8
8	9	6	2	9	8	1	7	4
7	1	5	8	9	6	3	2	7
2	9	8	6	1	7	5	4	3
8	6	5	7	2	8	1	9	7
9	7	1	9	8	2	6	7	3
1	2	4	7	6	9	8	5	1
2	8	1	8	7	6	9	2	3
9	8	6	1	9	2	7	3	8
6	1	2	9	7	1	9	2	8
8	9	6	7	9	1	2	7	8
1	2	4	7	6	9	8	5	1
8	2	7	1	8	9	1	6	9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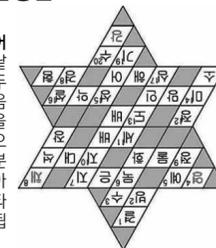
■ 가로열쇠

02. 얼음을 잘게 부수어 연유와 설탕, 과일 따위를 섞어 만든 먹음거리. 04. 좋은 명성이나 명예. 06. 오랫동안 숙성돼 특이한 감장 김치. 09. 과

일, 꽃 따위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들을 놓고 그린 그림. 10.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잡은 터에 쌓은 돌. 11. 선달그림에 웃어뜨려 인사로 하는 절. 13. 종이로 벽이나 반자 따위를 바르는 일. 14. 남편을 여윈 여자. 15.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순자가 주장한 설. 17. 깊은 바다에 사는 어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18.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봄. 19. 행사 때 대열의 앞에서 서서 기를 드는 일을 맡은 사람.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번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 세로열쇠

01. 물이 얼. 03. 먹으로 칠고 얼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 05.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정하거나 생각함. 07. 종다리나 제비 따위의 새가 지저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